

‘타이거즈 수호신’ 정해영,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24일 고척 키움전 세이브 추가
22세 8개월 1일만에 기록 달성
종전 임창용... 24년만 새기록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도

KIA 타이거즈의 ‘수호신’ 정해영(22)이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2020년 프로 무대에 입성한 뒤 다섯 시즌, 230경기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정해영은 지난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 6-2로 앞선 9회말 무사 1·2루 구원 등판해 1피안타만 허용하며 6-4로 팀 승리를 지켰다.

프로 통산 100번째 세이브를 앞두고 있던 정해영은 이날 등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선발 등판한 윤영철이 3회말 선제 실점했으나 6회초 이창진의 땅볼과 김도영의 적시 3루타, 이우성의 적시 2루타로 3-1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8회초 이우성의 땅볼과 김선빈의 적시타, 최원준의 적시타로 6-1까지 격차를 벌렸고, 8회말 장현식이 내보낸 주자가 송성문의 땅볼에 흠을 밟았음에도 4점차를 유지하며 세이브 조건을 벗어났다.

하지만 9회말 구원 등판한 유승철이 선

두타자 이원석을 불넷으로 내보낸 뒤 고영우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하며 무사 1·2루가 됐고 주자와 타자, 후속 타자까지 득점하면 동점이 돼 세이브 조건이 충족됐다.

정해영은 무사 1·2루 위기에서 등판했지만 수호신의 위력을 과시했다. 변상권에게 불운의 내야 안타를 내주며 3-6 추격과 함께 무사 1·3루로 이어졌지만 김재현을 1타점 땅볼, 주성원을 헛스윙 삼진, 이용규를 땅볼로 처리하며 6-4 승리를 지켰다.

정해영은 이날 세이브를 챙기면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새로 썼다. 22세 8개월 1일 만에 100번째 세이브를 달성하며 임창용의 종전 기록(23세 10개월 10일)을 24년 만에 갈아치운 것.

정해영은 광주일고 재학 중 2020년 1차 지명을 받아 KIA에 입단했다. 당시 정해영은 1990년 1차 지명으로 해태에 입단했던 아버지 정회열 동원대 감독의 뒤를 이으면서 KBO 리그 최초로 부자가 같은 팀에서 1차 지명을 받은 사례가 됐다.

입단 초부터 새 역사를 쓰며 화제를 모았던 정해영은 2020년 7월1일 한화전에서 첫 승, 7월26일 삼성전에서 첫 홀드를 챙긴 뒤 8월30일 KT전에서는 첫 세이브를 챙겼다. 데뷔 시즌인 2020년 5승 4패 11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3.29를 기록했던 정해영은 이듬해 본격적으로 마무리



KIA 타이거즈 정해영(왼쪽)이 지난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 9회말 무사 1·2루에서 구원 등판해 위기를 막으며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달성한 뒤 이범호 감독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투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 10월20일 KT전에서 20세 1개월 27일로 최연소 30세이브(중전 고우석 21세 1개월 7일)를 달성하며 클로저로 연착륙했다. 이어 2022년 6월2일 두산전에서 20세 9개월 10일로 최연소 50세이브(중전 한기주 21세 4개월 5일)도 주인공이 됐다.

또 2022년 9월24일 NC전에서는 최연소 2년 연속 30세이브(중전 임창용 23세 2개월 7일)를 거머쥐는 동시에 타이거즈 최초의 2년 연속 30세이브 주인공이 되며 ‘최연소 기록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슬럼프도 이겨냈다. 지난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3승 4패 1홀드 23세

이브에 그쳤지만 비시즌 기간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다녀오며 기량발전을 도모했고, 올해 26경기 만에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했다. 또 올해 4년 연속 20세이브와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의 35세이브까지 노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5연패’ 광주FC, 수원FC 상대 반등 노린다

내일 홈서 9라운드 맞대결

5연패 충격을 입은 광주FC가 휴식기 후 안방에서 수원FC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2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분위기를 쇠신한 광주 선수단은 수원FC를 반드시 꺾고 5월 대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27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주 8라운드 홈경기가 울산HD의 ACL 출전으로 순연돼 2주 만에 실전에 나서는 경기다.

광주는 이번 주 승리가 절실하다. 지난 달 17일 포항스틸러스와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대구FC, 인천유나이티드, 김천상무FC, 전북현대모터스에 잇따라 패하며 5연패 늪에 빠졌고, 순위도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해야 하는 11위까지 추락했다.

광주 선수단은 휴식기 동안 분위기 쇠신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지난 20일 한남대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했고 이견희와 오후성의 멀티골, 아사니의 득점포로 5-0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또 한우 회식으로 원기를 회복하며 선전을 다짐했다.

선수들에게 기분좋은 소식도 전해졌다. 광주는 당초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호주)

가 대회에 직행하면서 상대가 없어졌고, 부전승 행운을 얻었다.

광주는 수원을 상대로 17승 4무 6패의 압도적인 통산 전적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열 차례 맞대결에서도 20득점을 몰아친 반면 4실점만 허용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9승 1패의 우세를 기록했다.

가장 큰 호재는 김경민과 알렉스 포포비치의 복귀다. 김경민은 인천전 퇴장에 따른 출장 정지로 김천전과 전북전에 나서지 못했고, 포포비치는 AFC U-23 아시안컵 카타르 2024에 차출됐으나 호주의 조별리그 탈락으로 조기 복귀했다. 이들이 안정적인 뒷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출장 기회를 얻은 선수들도 패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전북전에서 박한빈은 본래 위치가 아닌 중앙 수비수로 나섰다. 정지용 역시 측면 공격수로 파괴력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베테랑인 김경재와 이우뜸도 수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의 경계 대상은 이승우다. 수원은 최근 이승우를 중심으로 공격을 몰아치며 리그 2연승으로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승우는 직전 경기인 제주전에서는 하프타임 교체 투입돼 1득점 1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짧은 출전 시간에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선수들의 자신감을 높여 훈련장에서 연습한 것 그대로 경기장에서 보여드리겠다”며 수원FC전 각오를 밝혔다.

한규빈 기자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영광 일원에서 22개 시군 3000여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참가 가운데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완도에서 열린 제31회 대회 개회식 장면.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29일 영광서 개막

22개 시·군 3000여명 21개 종목

전남 장애인체육인의 화합의 대축제인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29일 영광군에서 개막해 5월1일까지 3일간 뜨거운 열정을 펼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영광장애인체육회·가맹경기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위대한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22개 시군 3000여 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골볼, 론볼, 보치아, 좌식배구 등 2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29일 오후 3시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시·군 선수단 입장, 환영사, 대회기 게양, 대회사, 축사, 선수·심판 대표 선서, 성화점화, 식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 앞서 오후 2시30분부터 30분 동안 진행되는 식전 행사에는 지역가수와 공연팀 공연이 펼쳐진다. 개회식 축하공연에는 김수찬, 김기태, 강혜연, 김다나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대회기간 동안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뉴스포츠(보치아·한궁) 체험버스, 스포츠재활체험관, 휠체어보장구 수리센터, 정보통신보조기 등 30여 개의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고 유명가수 초청 축하무대도 마련된다. 폐회식은 5월1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대회 1-8위 시군에 종합 시상상을 비롯해 최우수선수상, 모범선수단

상, 성취상, 장려상 등을 수여하고 차기 대회 개최지인 장성군에 대회가 전달된다.

김영록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전남도지사)은 “‘천년의 빛’ 영광에서 열리는 제32회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에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14년 만에 개최하는 이 대회 준비를 위해 영광스포티움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등을 정비하고 숙박 시설, 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참가선수와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